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정규예배 시 '생활 속 거리두기(1m)' 방침에 따라 지정된 예배석에 앉으셔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이번 주 토요일 (8/1) 청소담당은 우즈베키스탄 목장(유중열 장로)입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주일간식은 헵시바 목장(김금옥 권사)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4. 8월 '하늘문의 만나' 책자가 본당 뒤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져 가셔서 매일 묵상집으로도 활용하거나, 전도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 허성경 형제가 내일(7/27) 공군 진주교육사령부에 입대합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담임 목사님은 이번 한 주간 여름휴가를 가집니다. 이번 주간 새벽기도회, 수요예배는 쉽니다. 단, 금요기도회는 기존대로 가집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 날짜	8월 2일	8월 9일	8월 16일	8월 23일
예배기도(오전)	신태식 장로	권용기 집사	신동기 집사	오진석 집사
예배기도(오후)	'코로나19'로 인해 없습니다.(추후 변경 가능)			
주일간식담당 (점심식사 No)	로뎀목장 (정진숙 권사)	한나목장 (이영선 권사)	아가페목장 (김경미 권사)	엘리목장 (신경미 권사)
토요일청소(고정)	우즈베키스탄목장 (첫째주 토요일)	캄보디아목장 (둘째주 토요일)	카자흐스탄목장 (셋째주 토요일)	키르키스탄목장 (넷째주 토요일)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2020년도 남·여 목장과 섬기는 목자들을 위해서
2. 교회학교(유치·아동부, 중·고 학생부, 청년부)와 섬기는 교사들을 위해서
3.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교회출석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4.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하루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5.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에이미 양 선교사님(U국)과 신완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쉼터(함안), 온누리비전교회(양구) 사역지와 사역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 드립니다.

HANEULMUN VISION MESSAGE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늘문 교회 비전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으로 다툼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찾아오시는 길

섬기는이
■ 부목사 : 김묘상 ■ 전도사 : 박일선 ■ 시무장로 : 유중열, 김윤식
■ 협동장로 : 신태식 ■ 반주자 : 신혜인, 허찬송 ■ 방송실 : 권다정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2536
(우)12192

http://www.haneulmun.com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 영 진
Pastor Young Jin Hur

SUNDAY A.M WORSHIP 주일 낮예배

1부(오전 9:30), 2부(오전 11:00) 인도 : 허 영 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 배 로 부 름		인 도 자
*성 시 교 독	교독문 25번(시 47:1-9)	다 같 이
*경 배 찬 송	64장(통 13장)	다 같 이
*참 회 기 도		다 같 이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양과 기도

찬 송	300장(통 406장)	다 같 이
대 표 기 도		유중열 장로(2부)

봉헌과 말씀

성 경 봉 독	엡 6:10-20	인 도 자
자녀를 위한기도		허영진 목사
봉 헌 기 도		인 도 자
말 씀 선 포	'영적 전쟁, 성도의 삶에 필수적'	허영진 목사

친교와 축복

교 회 소 식		인 도 자
*결 단 송	620장	다 같 이
*축 도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달의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9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SUNDAY P.M WORSHIP 주일 오후예배

'코로나19로 인해 쉽니다.'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 요 예 배	저녁 7:30 로마서 강해 이번 주 수요예배는 쉽니다.	허 영 진 목사
금 요 기 도 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올바른 기도의 과녁'(119)	허 영 진 목사
새 벽 기 도 회 (월~금)	새벽 5:30 은혜의 말씀묵상 이번 주 새벽기도회는 쉽니다.	허 영 진 목사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PASTOR'S COLUMN 목회자 칼럼

노래기와의 전쟁을 치루면서

초여름을 지나면서부터 새벽기도를 마치면 반드시 교회 본당바닥을 점검하는 버릇이 생겼다. 아, 물론 교회 출입구도 예외는 아니다. 징그럽게 기어 다니는 노래기 때문이다. 노래기는 마디 수 60개 이상에 달하는 지네와 비슷한 외형의 다지류 해충으로, 방언으로 노내기, 사내기라고도 불린다. 다 크면 몸길이 28㎝까지도 자란다고 한다. 어둡고 습한 곳에서 나무 등에 서식하는 곤충으로 생태계에는 유익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생김새가 혐오감을 유발하고 건드리면 몸통을 둥글게 말아 심한 악취를 풍겨서 '벌레계의 스컹크'라고 불린다.

예년 같으면 겨우 몇 마리를 볼까 말까였는데, 올 해는 유달리 많아 노래기 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산, 충북 보은군에 이어 경기 용인시의 도심에서도 노래기가 대량으로 출몰해 민원이 빗발쳤다고 한다. 교회 안팎에 지천으로 널린 채 기어 다니는 노래기를 보면서 처음에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그냥 발로 밀어내 보기도 하고, 이번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수십 마리, 어떤 때는 수백 마리씩 떼 지어 몰려다니면 빗자루로 쓸어 담아 보기도 했다. 예방 방제 차원에서 노리개 기피제를 사다가 뿌려보아도 그때뿐이다.

지난 겨울이 유난히 따뜻했고, 올해는 고온다습한 환경이 조성돼 노래기가 대량 번식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즉, 겨울이 겨울답게 추워야 하는데 노래기 유충들이 온난한 날씨가 나타나면서 월동한 노래기 알의 치사율이 낮아졌고, 살아남은 알들이 폭발적으로 부화했다는 설명이다. 유월의 산야(山野)가 아름다우려면, 초여름 한차례 내리는 비의 양이 많아야 한다. 그래야만 그 빗물을 온전히 마셔버린 식물이 곳곳에서 만발하기 때문이다. 지난 겨울을 시작하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른다. "주님, 이번 겨울은 혹독한 추위가 없게 하시고, 그렇게 잦은 눈도 내리게 않게 해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이었을까. 그렇게 지난 겨울은 46년 만의 따뜻한 겨울이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대가는 혹독한 현실로 나타났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힘겨운 시련의 과정은 신앙의 성숙을 향해 나아가게 한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회피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주어지면 주어지는 대로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들어야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중 그 삶은 만족이고 풍성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기도한다. "주님, 무더위도 참겠습니다. 때가 되면 지나가겠지요. 다만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왜 이렇게 더운 걸까?

Written by 허영진